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은영 : 723-5052 pec@pspd.org)
제 목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의 비리 의혹 제보
날 짜 2000. 6 . 16. (총 5 쪽)

보 도 자 료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 비리 제보 (구)한라시멘트 구조조정과정에서 개인 지분 30% 챙긴 의혹

1. 참여연대는 최근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의 비리 의혹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정몽원 회장은 한라시멘트가 부도난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 우량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의 지분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라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던 한라콘크리트 지분을 사실상 정몽원 회장을 대리하고 있는 대아레미콘(주)에 헐값에 매각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2. 한라시멘트는 97년 12월 부도가 나자 로스차일드식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로스차일드식 구조조정안은, 채권단이 부채를 탕감해주면 로스차일드가 브릿지론으로 외자를 유치해 남은 부채를 일시에 갚고 부채가 없어진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라시멘트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채 7,543억원을 탕감받고 로스차일드와 합작하여 RH시멘트주식회사(자본금 5천만원인 Paper Company)를 설립, 한라시멘트의 자산을 양수한 다음 로스차일드의 브릿지론으로 남은 부채를 청산하였다. 99년 7월 RH시멘트는 프랑스 라파즈사 및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외자 유치 MOU를 체결, 2000년 1월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상호를 라파즈한라시멘트주식회사로 바꾸고 부채비율 100%의 우량기업으로 변신했다.

3. RH시멘트사와 라파즈사 간의 합작 MOU체결은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로 많이 알려졌다으나, 실제 이 MOU에 정몽원 회장 개인의 지분을 30%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MOU 및 Addendum 사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라파즈한라시멘트((구)RH시멘트)주식회사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분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는 구할 수 없으나, MOU대로 외자유치가 진행된 점과 제보자가 제공한 4월 18일자 이사회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정몽원 회장에게 30%의 지분이 넘겨졌음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라파즈한라시멘트의 현 경영진으로부터 정몽원 회장의 30%의 지분 보유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되살린 기업을 다시 총수일가에게 되돌려준 셈이 되는 것이다.

5. 한라그룹은 작년말 만도기계의 외자유치 과정에서도 정몽원 회장이 지분 30%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지분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와 정몽원 회장간에 자문계약을 맺어 자문수수료 형태로 5년간 총 2,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정몽원 회장 측은 외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음을 설명하고, 차후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지분 30%에 대해서도, 만도기계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6. 또한 RH시멘트사는 99년 12월 28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라콘크리트 유상증자에 전액 참여, 400억원을 출자한 직후인 99년 12월 31일 한라콘크리트 지분 100%를 대아레미콘(주)에 3억원에 매각하여 39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식회사 199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보에 따르면, 대아레미콘(주)는 한라그룹의 위장계열사로서 사실상 정몽원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제보 내용을 검찰에 전달하고 RH시멘트사의 대표이사인 문정식의 배임행위 여부와 정몽원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7. 부실기업의 화의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직·간접적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채권단과 합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대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는 기업의 또다른 부실과 구조조정의 성과를 소수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동원한 구조조정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워크아웃 및 화의 기업들의 경영실태와 지배구조, 외자유치 과정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 사건 개요 및 설명 자료

<사건 개요>

한라시멘트

노동자 수백명 구조조정

- 97.12. 6 부도 - 설명1
- 97.12. 9 화의신청
- 채권단, 부채 7,543억원 탕감
- 화의종결
- 98.12.31 RH시멘트에 자산양도
- 설명2
-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

RH시멘트

(98.10.27 설립)

- 98.10.27 회사설립 - 설명3
(자본금 5천만원)
- 99. 3.11 로스차일드 브리지론
3억 4,500만달러 도입 - 설명4
- 98.12.31 한라시멘트 자산양수
- 99. 2. 4 자본금 1억원으로
유상증자

라파즈한라시멘트

(2000.1.14 상호변경)- 설명7

- 99.12.31 RH시멘트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한라
콘크리트지분(8,666,900주)
을 한라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는 대아레미콘(주)
에 주당 34.6원에 매각하
여 438억원의 처분손실 발
생. - 설명8

- 99.7.13 외자유치 MOU 체결
(정몽원이 전체지분의 30%,
라파즈사와 파이낸셜 파트너가
70%를 갖는다는 내용) - 설명5
- 2000.1.12 라파즈사와 SWIB
에서 2억달러 출자하여 자본금
333,335천원으로 증가. - 설명6
- 현재 지분구조
라파즈 39.9%
SWIB 30.1%
Halla(?) 30%

<설명>

1. 97년 12월 6일 한라그룹이 부도나고 한라시멘트는 12월 9일 화의를 신청하여 98년 3월 화의가 개시됨. 한라시멘트 채권단은 98년 10월 12일 총 1조2천50억원의 부채 중 62.5%에 달하는 7천5백43억원을 탕감해 주고, 잔여채무는 시멘트사업 양도자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화의종결.
2. 한라시멘트는 1998년 12월 31일부로 RH시멘트주식회사와 시멘트제조부문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4,012억원에 자산을 양도함. 당시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1,940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줌.
3. RH시멘트사(대표이사:문정식)는 한라시멘트와 로스차일드가 합작하여 세운 Paper Company로서 98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천만원, 주주는 허창복(로스차일드의 대리인), 송현웅 등 2인. 99년 2월 4일 자본금 1억원으로 유상증자 함. 9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 허창복, 송현웅 등 2인. 현재시점의 주주내역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애초에 로스차일드는 3억 4,500만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로스차일드가 들여온 돈은 2억 4,500만달러이고, 나머지 1억달러는 서울·아리랑·무궁화구조조정기금 등 국내에서 차입.

참고 : RH시멘트주식회사 199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과목	차입처	차입금의 종류	금액(단위:천원)
단기차입금	RH CEMENT FINANCE PLC.	구조조정기금	280,623,000
	서울부채조정기금	구조조정기금	59,300,000
	무궁화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기금	29,650,000
	아리랑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기금	29,650,000

5. 99년 7월 13일 체결된 MOU는 라파즈사와 RH 시멘트, 정몽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Existing Shareholders: 33 1/3%, Financial Investors: 33 1/3%, Lafarge: 33 1/3% 로 지분을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이 MOU에 대한 9월 22일자 Addendum에는 정몽원 30%, Lafarge 35%, Financial Investors 35%로 지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이후 이 MOU대로 라파즈사 및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SWIB)로부터 자금이 투입되었고, 2000년 4월 18일자 이사회자료에는 지분율이 Lafarge 39.9%, SWIB 30.1%, HALLA 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몽원이 MOU내용대로 3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파즈한라시멘트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6. “당사는 2000년 1월 12일 Financiere Lafarge사와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에서 US\$ 200,000,000을 출자하여 RH시멘트사의 자본금은 333,335천원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 1월 12일 환율인 US\$ 1/1,131.8원으로 계상한 226,126,665천원을 주식발행초과금에 계상하였고, 2000년 1월 13일 국민은행 Syndicate Loan 250,000,000천원을 차입하여 동일로 RH CEMENT FINANCE PLC 차입금 US\$245,000,000(280,623,000천원)과 서울부채조정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8,600,000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RH시멘트주식회사 199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7. 2000. 1. 14. 라파즈한라시멘트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정몽원이 동회사 이사로 등재됨.

8. RH시멘트사는 1999회계연도 기초에 한라콘크리트 주식 570,960주(지분율 85.61%)를 보유하고 있었고(취득원가 : 4,111,250,749원, 주당 가액 : 7,200원), 99년도 중 한라콘크리트의 나머지 주식 95,940주를 주당 10원에 매입하여 100% 지분을 확보함. 한라콘크리트는 99년 12월 28일, 29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4백만주씩 총 8백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RH시멘트사는 여기에 전액 참가(취득원가 : 400억원, 주당가액 : 5000원)하여, 총 8,666,9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게 됨.

RH시멘트사는 99년 12월 31일 이 주식 전체를 대아레미콘(주)에 3억원(주당 가액 : 34.6원)에 매각하여 43,812,210.139원의 처분손실 발생